

# 광주시 '아동학대 방지' 공공 보호체계 강화

즉각분리제 위한 보호시설 확대  
이달 중 일시보호소·쉼터 확충  
아동보호전담요원 3명 더 충원

광주광역시시가 올해 공공 아동보호  
체계를 더욱 강화한다.

지난해 광주 지역 아동학대 의심  
신고건수는 1010건으로, 이중 아동학  
대로 판정된 건수는 743건이다.

이는 전년도 신고건수 858건보다  
17% 증가한 수치로, 코로나19 여파로  
2020년 학교·유치원 등이 쉬면서 신  
고의무자의 신고가 줄었다가 지난해  
등교가 늘면서 신고의무자와 시민 신  
고가 늘어난 것 결과로 풀이된다. 학  
대 행위자 조치 결과는 모니터링  
53.4%, 고소·고발 45% 등이다.

이에 광주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 
의 공적 보호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

즉각분리제를 위한 보호시설과 가정  
형 보호 확대, 아동학대 대응인력 확  
충, 조기발견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  
템 활용,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시민  
의식 개선에 나선다.

시는 그동안 영아일시보호소 1곳  
과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을 운영하고  
있는데, 이달 일시보호소 1곳과 남  
구, 북구에 쉼터 1곳씩을 확충한다.

먼저 이달 동구에 개소할 일시보호  
시설은 종전 영아만을 전담하던 불편  
함을 해소하고 남매도 같은 시설에서  
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 남녀  
27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했으  
며, 숙소와 식당, 놀이공간, 심리치료  
실과 도서실을 갖췄다.

이 시설은 지하 1층, 지상 3층으로 큰  
규모이지만 국·시비 기능보강사업과 운  
영을 중단한 어린이집을 활용해 예산을  
절감하고 빠르게 개소할 수 있었다.

또 자치구마다 피해아동에게 보  
호·치료·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  
를 설치하기 위해 기존 동·서구 외에  
남구(여아)·북구(남아)에 정원 7명을  
수용할 수 있는 쉼터를 1곳씩 설치해  
1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한다.

광산구는 올해 국·시비 4억2000만  
원을 지원해 상반기에 설치한 후 7월  
이후 개소할 예정이다.

24시간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를 하  
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보호아동  
의 양육계획을 점검하는 아동보호전  
담요원도 확충한다.

지난해까지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  
공무원은 총 20명으로 신고건수 1010  
건 대비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인 1명  
당 50건을 약간 넘어서는 만큼 올해 1  
명 더 충원할 예정이며 시행 초기를  
감안, 내년 9월까지의 아동보호전문  
기관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현재 25명인 아동보호전담요원도  
3명 더 충원할 예정이다.

그간 학대조사를 하던 민간기관인  
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족치료·상담·  
사례관리 등 재학대 방지에 주력하면  
서 시와 체벌 없는 양육법을 홍보하는  
등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도 함께 전개  
할 계획이다.

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보건복  
지부 빅데이터 시스템(e아동행복지  
원)으로 장기결석, 예방접종 미실시  
등 아동보호가 필요한 가정을 예측해  
자치구 직원이 방문 조사하고, 발견  
된 위기아동은 드림스타트 사업이나  
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한다.

마지막으로 광주시는 경찰청, 교육  
청, 전문기관과 함께 광역아동보호전  
담기구를 분기별로 운영해 추진상황을  
공유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.

/광주=김태수 기자 ts7080@metroseoul.co.kr

## 지역 이모저모



### 목포시 '첫만남 이용권' 사업 출생아 1명당 200만원 지원

목포시가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을 일시금  
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'첫만남이용권' 사  
업을 시행한다.

첫만남이용권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출생순  
서에 상관없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 
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으로 충전·지급된다.

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 
동행정부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  
로,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  
청 가능하다.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  
청해야 한다.

/목포(전남)=양수영 기자

# 전남, 청년층 귀농귀촌 지원 예산 883억 투입 '역대최다'

귀어인의 집 조성 지원 등 11건 지원  
귀농 유치활동·정착지원에 62억

전라남도는 '살고 싶은 농산어촌  
구현'을 목표로 청년층의 농업 창업  
을 촉진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 
정착을 돕기 위해 올 해 역대 최다  
인 883억 원을 들여 다양하고 차별화  
한 전남형 귀농귀촌 유치정책을 시  
행한다.

추진 사업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,  
전남에서 살아보기 지원, 귀농창업자  
금 및 주택자금 지원, 귀어인의 집 조  
성 지원 등 11건이다.

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의 경우 농  
촌이주 희망 도시민의 임시 주거공간  
마련과 농촌 정보제공 등 프로그램 운  
영에 62억 원을 투입한다. 현장에서  
귀농귀촌 유치활동과 함께 정착 지원  
의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이다.

전국 최초로 도입한 '전남에서 살  
아보기' 사업은 예비(초보) 귀농귀  
촌인의 농어촌 문화 이해와 지역 정착

을 돕고, 마을 주민 스스로 유치 활동  
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2억 원을  
지원한다.

특히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 
융자지원 사업은 도시민이 안정적으  
로 농어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  
업이다. 농지구입 등 창업자금은 최  
대 3억 원,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 원  
까지를 연이율 2%, 5년거치 10년  
원금 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  
한다. 귀농인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 
사업이다.

신규로 귀어인의 집 조성 시범사업  
에 5000만 원을 투입한다. 귀어귀촌  
희망자가 어업·양식업 등 기술을 배  
우고 어촌체험 후 귀어하도록 임시거  
처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 어촌 정착을  
유도하기 위한 것이다.

이밖에 귀농산어촌 박람회 개최,  
어울림 마을 조성, 어울림 대회 등 귀  
농산어촌 유치활동과 지역민과의 화  
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10억 원을 지원  
한다.

/전남=양수영 기자 ysn6313@



함평추억공작소 조감도 모습

### 문화유물전시관 새이름 '함평추억공작소'

함평군, 명칭공모서 최종 결정

함평문화유물전시관이 지역 주민  
과 공직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  
로운 이름을 찾았다.

함평군은 11일 "함평엑스포공원에  
위치한 문화유물전시관의 새로운 명  
칭으로 '함평추억공작소'가 최종 선  
정됐다"고 밝혔다.

'함평추억공작소'는 관광객들이  
70~80년대 함평의 옛 풍경을 그대로  
재현해 낸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추억  
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

있다.  
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군민 등을  
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실시, 총건이  
접수됐다.

이 가운데 선호도 조사, 심사위원  
심사 등을 거쳐 '함평추억공작소',  
'추억애(愛) 함평천지', '머물다, 추억  
in함평' 등 최종 3건이 선정됐다.

이어 3건에 대해 군청 직원을 대상  
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'함  
평추억공작소'가 가장 높은 점수를  
받으며 최종 명칭으로 결정됐다.

/함평(전남)=김태수 기자

### 에어부산-모모스커피, 컬래버 상품 선봬

에어부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  
해 로컬 브랜드와 협업을 강화한다.

에어부산은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 
모모스커피와 콜라보 상품을 선보인  
다고 11일 밝혔다. 에어부산은 모모  
스커피의 전문성을 살린 드립백 커피  
와 두 브랜드의 이미지를 담은 배지 2  
종을 출시한다.

모모스커피는 한국 바리스타 최초  
'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(WBC)' 1위  
를 차지한 전주연 바리스타가 소속된  
스페셜티 커피 전문점이다. 이번 협  
업으로 제작한 드립백 커피는 '부산  
블렌딩' 제품으로 포용과 환대의 부



에어부산이 커피 전문점 모모스커피와 협업을 통해 콜라보 상품인 드립백커피와 굿즈를 출시했다.

산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브라질, 에  
티오피아 원두를 조합해 편안하고 부  
드러운 맛을 냈다.

/양성문 기자 ysw@

### 신안 '기점소악도' 관광객에 인기

관광객 20배 늘어... 연간 5.4만명

신안군은 증도면의 작은섬 기점소  
악도에 2021년 한해에만 5만 4천여 명  
의 관광객이 방문해 2018년 대비 20배  
나 증가했다고 밝혔다.

증도면 병풍도에 딸린 기점소악도  
는 지난 2017년부터 전라남도 가고 싶  
은섬 가꾸기 사업에 선정되었다.

기점 소악도가 사람들의 발길을 잡  
아끄는 이유는 바로 노들길과 12사도  
예배당이라 불리는 건축미술 작품들  
때문이다. 노들길과 언덕 위, 숲속에  
자리하고 있는 작품들은 모두 아름다

운 풍경속에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.  
예배당을 연결하는 끈과 같은 12km  
의 고즈넉한 순례길을 걷다 보면 마음  
이 평화로워진다. 또한, 그리스, 러시  
아, 프랑스 성당 같기도 하고 한국적  
불교문화가 느껴지기도 한다. 작가들  
의 다양한 생각을 담고 있지만, 이곳  
을 찾는 사람들 또한 각자의 느낌과  
사유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.

신안군은 작은 섬에 대한 활발한 투자  
로 취약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섬의 가  
치 극대화를 위해 섬의 특성을 고려한 섬  
별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현실화 시켜나  
가고 있다.

/신안(전남)=안행주 기자 abcd@

### "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" 나주시, 내달 10일까지 접수

나주시는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 
위한 신청서를 오는 2월 10일까지 주소지  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.

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  
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21년 1월 1일 이  
전부터 계속해 나주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  
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.

시는 신청서 접수 후 공익수당위원회 요  
건 확인 등을 거쳐 3~4월 중 60만원 전액을  
나주시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.

/나주(전남)=김태수 기자